

비외상성 질환에서의 견관절 치환술의 임상적 결과 Clinical Outcome of Shoulder Replacement in Non-Traumatic Patients -A Comparison of Hemiarthroplasty and Total Shoulder Arthroplasty-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용걸 · 임찬택 · 하정한

목 적

비외상성 견관절 질환에 있어서의 견관절 부분 치환술과 전치환술의 임상적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견관절의 비외상성 질환으로 견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2명 3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55세(26~74)이었으며, 이중 남자가 7명, 여자가 25명 이었다. 추시기간은 평균 2년 5개월(1년~9년5개월)이었다. 원인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18례(52%)로 가장 많았으며 퇴행성 관절염이 7례(21%), 무혈성 괴사가 4례(12%), 혈우병성 관절염이 3례(9%), 강직성 척추염과 회전근 개 파열 관절증이 각각 1례 였다. 견관절 부분 치환술은 11례에서 시행하였으며 전 치환술은 23례에서 시행하였다.

결 과

최종 추시시 견관절 부분 치환술의 경우 운동시 동통은 술전 7.09에서 0.91로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전방거상은 평균 102도, 외회전 및 외전은 각각 평균 55도와 131도 였으며, ASES 점수는 평균 85.6점 이었다. 견관절 전치환술의 경우는 동통이 술전 7.04에서 1.17였으며, 전방거상, 외회전 및 외전은 각각 평균 132도, 44도 및 132도 였다. ASES 점수는 평균 79.7점 이었다. 질환별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부분 치환술과 전치환술을 각각 3례와 15례에서 시행하였고, ASES 점수는 각각 평균 77.8과 78.1점이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각각 3례와 4례에서 시행하였으며 각각 평균 93.3과 90.8점이었다. 방사선학적 평가의 경우 2 mm이상의 진행하는 방사선 투과선을 보인 경우는 1례였고 관절와 침식은 부분 치환술에서 2례(18%)에서 나타났으며 관절와 헤리는 전치환술에서 1례(4.3%)에서 발생하였다.

결 론

비외상성 환자에서의 견관절 치환술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부분 치환술과 전치환술의 결과는 많은 차이는 없었다. 류마티스 관절염 보다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결과가 더 좋았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